

KFP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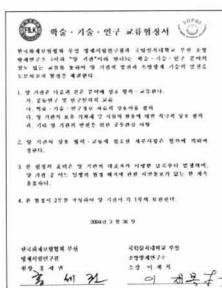
박정훈 이사장, 본부 및 연구원 FY2004 팀별 업무보고 받아



팀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서별 업무현황 파악과, FY2004년 주요 업무계획 점검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업무보고는 담당 본부장 및 부서장, 전 직원의 참석 하에 각 팀장의 FY2004의 주요업무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FY2003 업무 실적보고 및 건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방재시험연구원(FILK), 삼척대 소방방재연구소와 학술·기술·연구 교류협정 체결



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 국립삼척대학교 부설 소방방재연구소와 학술 및 기술 등 양 기관의 연구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FILK와 소방방재연구소는 앞으로 공동연구 수행,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학술

및 기술, 연구정보자료의 상호 이용 등 소방방재 분야와 관련한 기술공유 및 인적교류를 진행하기로 하고, 학·연·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소방방재 분야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FILK 홍세권 원장은 “국내 최고의 종합화재시험 연구기관으로서 20여 년 간 소방방재 분야의 기술력 향상에 진력해온 FILK와 지난해 6월 설립 이래 국립 삼척대가 세계적인 연구소로 육성하고 있는 소방방재 연구소의 이번 협정이 국내 방재기술의 세계화와 이를 통한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인스펙터상 및 화보사이언티스트상 시상



협회는 5월 15일

창립 31주년을 맞아
사내 우수 직원에게
제1회 베스트 인스
펙터상 및 제7회 화

보사이언티스트상을 시상하였다.

베스트 인스펙터상은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및 위험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화재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여 위험개선을 위한 대응대책을 제언하고, 방재기술을 보급함은 물론 화재보험대책에 대하여도 기술적 조언을 하여 위험관리기술을 고양시킨 업적에 대한 표창으로 대전지부 홍영표 사



홍영표 사원



하용석 과장

협회 소식

원과 위험조사부 하용석 과장이 수상하였다.



문성호 팀장

한편 화보사이언티스트 상은 협회 직원들이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하여 방재 및 위험관리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표창으로, 경영기획부 문성호 전산팀장이

화재 모델링 (Fire Dynamics Simulator)에 관한 연구로서 스프링클러 설치공간에서의 헤드반응속도에 관한 화재해석을 다룬 논문으로 수상하였다.

이러한 표창들은 직원들의 화재안전분야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높이고 연구능력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손실경감 및 방재기술개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재시험연구원(FILK), 군함의 미사일 발사를 재현한 “열 충격실험” 실시

연구원은 4월 20일 선박기자재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군함 등에 설치된 미사일이 발사될 때 발생하는 열기로 인해 주위에 설치된 창문의 열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창유리의 열 충격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은 선박에 설치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시간 약 0.4초, 온도 약 750°C) 미사

일로부터 약 5m 거리에 있는 선박 창유리의 안전성 및 작동상의 이상유무 등을 증명하기 위한 특수실험으로 연구원에서 개발, 적용하였다.

연구원은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시 열충격으로 인한 군함의 창유리 안정성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던 국내 선박용 창문 제조업체의 기술적 애로점을 해결하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창유리 완제품 수입에 의존하였던 관례를 바꾸어 기술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우회 체육대회 개최

우리 협회 퇴직자 모임인 화우회(회장 이두홍)는 지난 5월 13일 회원의 건강과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춘계 체육대회를 경기도 포천군 소재 산정호수에서 많은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화우회 변인근회원, 과학기술회원 훈장 수상

화우회 회원의 변인근 사장((주)중앙디자인)이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과학기술 훈장인 도약장을 수상하였다. 이 훈장은 변사장이 평소 “이공계 살리기 운동”에 적극 앞장선 공적이 인정되어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된 것이다.

※ ‘Q&A’ 코너는 기사가 넘쳐 이번 호에서는 쉽니다.